

삼도2동 동네상점 탐방주간 결과보고서



목차

인사말	2
성과 요약	3
사업 소개	4
배경	4
목적	4
추진방식	4
추진일정	5
사업의 성과	6
밋업 개최 참여자	6
수집한 의견	6
사업추진 상세내용	7
소요비용	18
비용 사용 내역	18
사업을 위해 수행한 작업	19
합의점	20
가능성	20
밋업 운영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20
별첨	21
홍보자료	21
동네상점 피드백 설문지	27
밋업 참석자의 질문들	31
밋업 참석자의 거주지역	31
밋업 참석자가 이 행사에 대해 알게 된 경로	32
각자 거주하는 동네 개선에 관한 밋업 참석자의 의견들	32
상점 사장님의 목소리	35
밋업 운영에 관한 밋업호스트의 소회	38
밋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밋업호스트의 생각	42
밋업 참여자의 참여소감 및 개선 제안들	43
행사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물었던 질문들	45

인사말

안녕하세요.

“동네상점 탐방주간”을 알리고 진행하면서 관심과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는 “동네상점 탐방주간”행사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밝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이 행사가 가진 가능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나가면 좋을지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동네상점에 대한 평가의 경우, 부정적인 내용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상점 사장님에게만 전달하여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상점 사장님과 인터뷰 내용은 익명화하여 내용만을 일부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상점탐방을 진행하면서, 저는 일상적인 대화의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자주, 깊이, 즐겁게,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 삶에 대해서 대화한다면, 우리 삶이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장을 열고, 대화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하도록 제우스퀘어는 시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동네상점 탐방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분들, 직접 참여해주신 분들, 진행해주신 밋업호스트 정현량님, 인터뷰에 협조해주신 동네상점 사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우스퀘어
대표 김나솔 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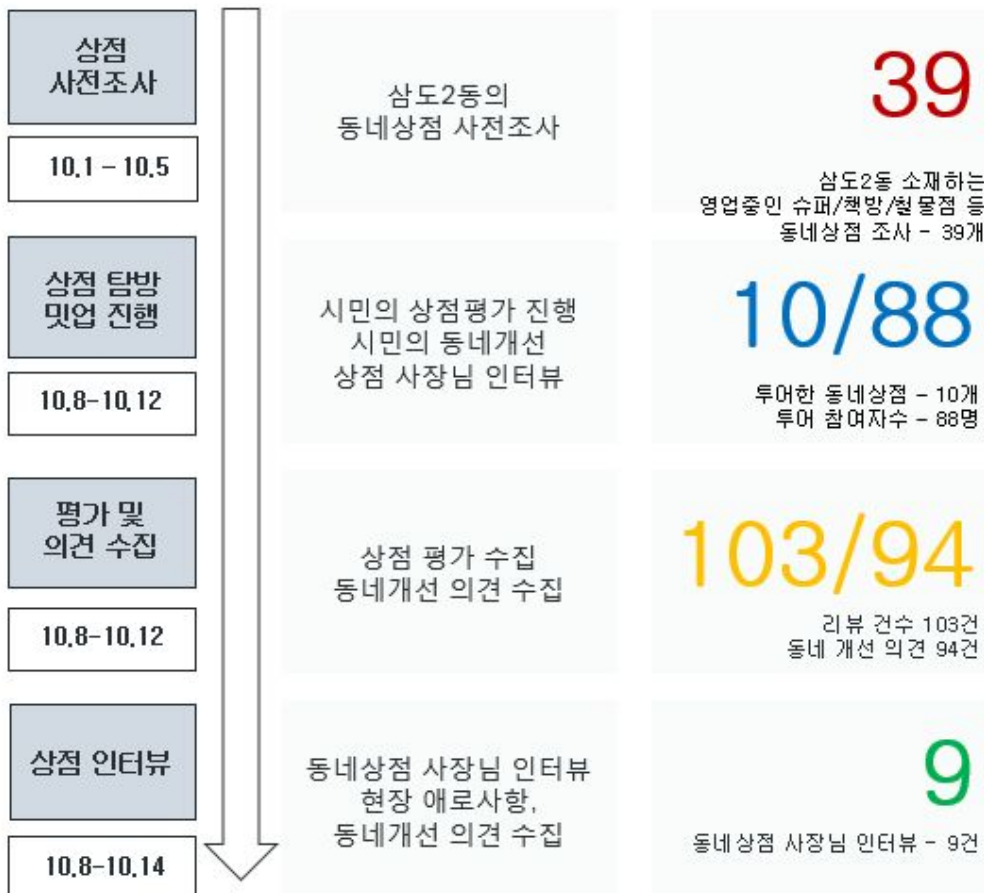
성과 요약

추진목적

- 온라인을 활용한 소상공인에 관한 시민의 피드백 전달 모델 모색
- 밋업과 온라인을 활용한 제주 지역의 생활여건에 관한 시민 의견 파악 모델 모색
- 시민 참여형 지역활성화 모델 모색

추진내용

- 사업명: 삼도2동 동네상점 체험주간
- 삼도2동의 동네상점 열 곳에서 밋업 10회 개최
- 밋업 기간: 2018.10.18(월) - 10.12(금)
- 동네상점에 대한 피드백 온라인 수집
- 밋업 참여자의 거주 동네에 대한 개선의견 온라인 수집



사업 소개

배경

- 삼도2동은 주민들이 활성화의 필요를 많이 느끼는 지역임.
- 동네의 활성화라는 과제는 어려움인 동시에,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기회와 소재이기도 함.
- 동네의 활성화에 관한 담론을 위하여, 장벽이 낮으면서 생활에 밀접한 접근 중 하나는 작은 물건 구입하기.
- 개별 상점을 발굴하여 단순히 홍보하는 차원보다는, 삼도2동에 있는 상점을 발굴하여, 장점이 있다면 장점을 알리고, 단점이 있다면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식을 추구함.
- 작은 물건을 사는 것은 일상적으로 부담없이 하는 활동이므로, 쇼핑을 소재로 하여, 동네 활성화의 실마리를 모색하고자 함.
- 온라인을 활용하면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집할 수 있음. 다만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면 참여율을 높이기 어려우므로, 오프라인 밋업과 대화를 선행하여 온라인 의견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목적

-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의 소상공인 피드백 전달 모델 모색
- 밋업에서의 대화와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의견 수집 모델 모색
- 소상공인의 현장의 애로사항 및 인근 개선 제안 직접 수집 모델 모색

추진방식

밋업호스트 선정 > 슈퍼 및 기타업종 동네상점 조사 > 슈퍼 및 기타업종 동네상점 탐방밋업 > 피드백 온라인 수집 > 상점주인 인터뷰

- 삼도2동 동네상점 열 곳 선정 및 밋업 개최
- 상점에 대한 피드백 ⇒ 온라인 수집
- 거주동네에 대한 개선의견 ⇒ 온라인 수집
- “동네상점을 체험하는 주간”이라는 컨셉을 설정하여, 삼도2동의 주민, 일하는 분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네상점 평가하기와 우리 동네의 개선포인트”를 주제로 밋업(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을 진행하기로 함. 상점 및 구매한 것에 대해 대화함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동네의 삶의 질, 개선 포인트”에 대해서 대화하도록 함.
- 상점 선정 방식

- 슈퍼의 경우 편의점, 대형마트들은 제외하였음.
- 구매 즉시 피드백이 힘든 곳은 제외하였음.
- 작은 물건을 고르고 구매하여 바로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업종으로 제한하였음(슈퍼, 철물점, 빵집, 책방). 세탁소나 미용실 등도 정겨운 동네 상점이지만, 단기간에 체험하고 후기를 남기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음.

추진일정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총 4주에 걸쳐 진행하였음.

- 1째주 : 기획, 사전 조사(상점 조사), 상점 선정
- 2째주 : 홍보
- 3째주 : 밋업 진행 (5일간 10회)
- 4째주 : 리뷰 및 보고서 작성

사업의 성과

밋업 개최 참여자

- 총 밋업 횟수: 10회
- 동네 슈퍼: 6곳, 동네철물점: 1곳, 동네 빵집: 1곳, 동네서점: 2곳
- 신청자수: 76명 (20명 선착순 제한, 방문 전날 저녁 8시 이전 신청자에 한해서 후기 작성단으로 선정하였음)
- 총 참여자수: 88명 (미취학 아동, 중복 참여 포함, 참여자의 거주지역은 별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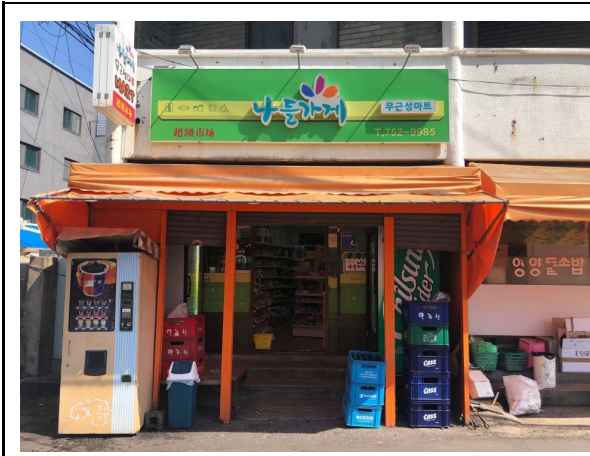
수집한 의견

- 슈퍼 및 동네 상점에 관한 피드백
 - 가격에 관한 피드백: 103건
 - 제품구성에 관한 피드백: 102건
 - 서비스에 관한 피드백: 104건
 - 공간에 관한 피드백: 87
- 동네 개선에 관한 의견: 94건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 동네슈퍼, 철물점, 빵집, 서점 주인의 목소리 수집 : 9건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사업추진 상세내용

1일차 낮

- 상호명: 무근성마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길19, 064-752-9985)
- 참석자수: 11명
- 쇼핑물품: 소면, 골뱅이, 참치, 스위트콘, 햄, 김, 우유, 소시지, 계란, 삼다수, 파워에이드, 담배, 식초, 식용유, 굴소스, 곰탕, 펄크린, 청테이프, 소주, 라면, 초코파이, 오에스, 화장지, 물티슈, 면봉, 누네띠네, 비타민음료, 맥주, 식혜, 치약, 헛개차, 스프, 초콜렛 등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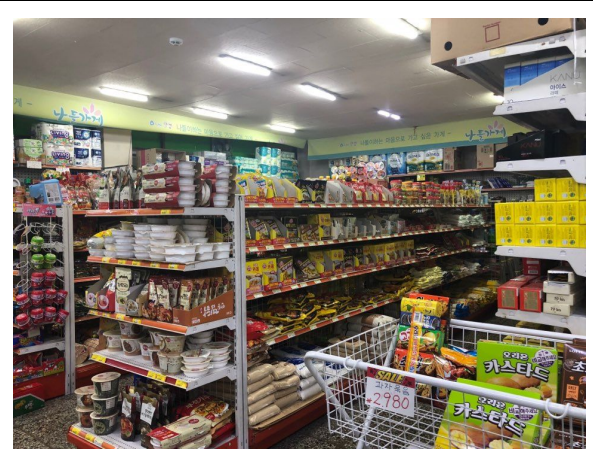


슈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슈퍼에 적절하고 합리적 가격 - 소용량이 많아 가격비교는 어렵지만 나쁘지 않음	- 작지만, 알찬 구성 - 편의점처럼 편리한 물건이 많음 - 소량 포장 제품	- 깔끔한 정리 - 편하게 되어있음 - 필요한 물건이 잘 배치되어 있음

1일차 저녁

- 상호명: 정다운 슈퍼마켓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4길 14, 064-758-7178)
- 참석자수: 5명
- 쇼핑물품: 우유, 사과, 포도, 두부, 칫솔, 계란, 멸치, 빵, 껌, 데톨, 손세정제, 리필증정, 세라믹칼갈이, 가그린오리지널, 에너지저 AA, 콜라, 마요참치, 고추참치, 깻잎, 콘스위트, 감, 굴, 바나나, 우유, 데미소다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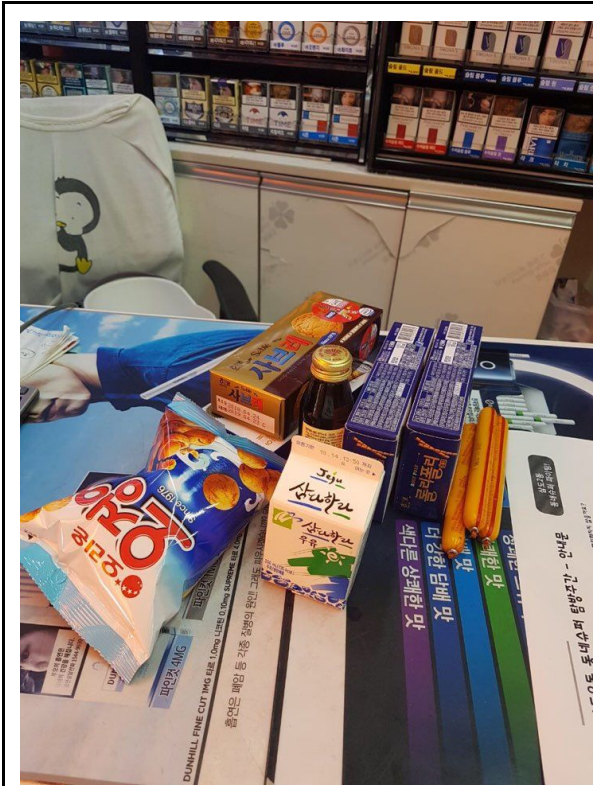


슈퍼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동네슈퍼에서 만나는 좋은가격 -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	- 많은 구성이 있어서 좋음 - 혼족을 위한 제품구성/세일품목 - 반려동물 제품까지 구비	- 공간이 넓어 쇼핑하기 좋음 -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정리가 잘 됨 - 친절함

2일차 낮

- 상호명: 미공개
- 참석자수: 7명
- 쇼핑물품들: 우유, 과자, 쏘세지, 캔디, 아이스크림, 콘플레이크, 계란, 참치캔, 흰면장갑, 라면, 핫반, 멸치, 빵, 껌
- 관련사진:





2일차 저녁

- 상호명: 마트 2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8길 10, 064-757-0131)
- 참석자수: 6명
- 쇼핑물품들: 요구르트, 두유, 배음료, 계란, 라면, 과자, 사탕, 카레, 캔맥주, 맛살, 웨하스, 바나나, 카스테라, 두부, 컵라면, 고무장갑, 크림스프, 사과, 옥수수수염차, 랩호일, 참기름, 만두
- 관련사진



슈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가격대 다양 - 합리적 가격 - 저렴한 품목도 많고, 가격표도 잘 붙어있음	- 필요한 거 다 있어서 좋음 - 여러가지 품목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음 - 간단한 속옷도 있음	- 작지만 알차게 진열 - 위생상태 양호 - 정리가 잘 되어있음 - 친절하심

3일차 낮

- 상호명: 그린마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길 36, 064-721-1533)
- 참석자수: 11명
- 쇼핑물품들: 콜라, 콘아이스크림, 런천미트, 소주, 양파, 상추, 돼지고기, 애호박, 버섯, 달걀, 깻잎, 김, 잡곡, 치자콩맛국수, 카레, 창란젓, 깨, 김, 참치캔, 물, 커피, 과자, 자른미역, 후추, 통밀과자, 양배추, 신라면, 오뎅, 단무지, 김자반, 참인절미, 홍시 등
- 관련 사진



슈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대형마트에 비해 적절한 가격도 있음 - 합리적인 가격 - 비싸지 않고 적당 - 저렴한 것들이 많음	- 규모가 있어 구성은 만족 - 제주도 현지생산 제품들 - 과일부터 야채까지 잘 구성되어 있음	- 한눈에 보이고 시원한 느낌 - 편안하고 깔끔 - 공간을 잘 활용해서 물건이 비교적 많이 진열됨 - 깨끗하게 정리 잘 됨 - 친절히 응대해주시고 협조적이심

3일차 저녁

- 상호명: 동네슈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무근성길 41, 064-759-0983)
- 참석자수: 11명
- 쇼핑물품들: 스파게티면, 토마토 스파게티소스, 동원자연산골뱅이, 갯잎무침, 버섯, 달걀, 참치캔, 리빙티슈, 사과식초, 스팸, 국수, 핫반, 슈퍼츄즈, 김, 카레볶은밥, 박카스, 애호박, 망고주스, 땅콩강정, 광어회, 물, 아이스크림, 비타 500, 막걸리, 미역줄기, 김, 팩티슈, 참치캔, 갯잎장아찌
- 관련사진



슈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자연산 회 가격이 무척 저렴 - 식료품이나 해산물 가격이 좋음	- 슈퍼로서 기본 물품밖에는 없지만, 다른 슈퍼와 다른 특이한 품목(회)가 있어 좋음 - 반찬이나 야채, 생선 등 동네마트에서 잘 안 다루는 것이 많음	- 옛날 구멍가게 형식이라 정감이 감 - 친절함

4일차 낮

- 상호명: 동양철물상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 064-758-8890)
- 참석자수: 9명
- 쇼핑물품들: 테이프, 장갑, 열쇠, 사포, 백색실리콘, 석쇠, 호미, 갈퀴, 삽, 금계, 갈퀴리, 라이타
- 관련사진



철물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양호함 - 저렴하고 좋음	-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다 있음 - 사고 싶은게 다 있음 - 뒷박이 이쁘고 야외용 빗자루가 튼튼함 - 제품 구성이 좋음	- 좁은 공간이지만, 정겨웠음 - 공간은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는듯함 - 좁은 공간을 잘 활용함 - 유쾌하시고 친절하심

4일차 저녁

- 상호명: 동림당(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2길 24 지하 , 010-7799-3631)
- 참석자수:8 명
- 쇼핑물품들: 강철대공, 우리는 숲으로 간다. 풀짚공예 만들기, 귀환인, 대인배,큐브릭, 산이야기, 스콧 니어링 자서전, 위대한 유산, 내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목공 DIY, 셀프인테리어
- 관련사진



현책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저렴함 - 가격이 생각한 것과 비슷해서 적당하다고 생각	- 다양해서 좋음	- 현책방의 정겨운 분위기 좋음 - 주인이 매우 친절하심

5일차 낮

- 상호명:요한이네빵집(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16-1, 064-757-3539)
- 참석자수: 12명
- 쇼핑물품들: 아몬드전병, 소세지빵, 옛날빵, 롤케익, 식빵, 단팥빵, 소세지빵, 양과, 우유 파배기,호두파이 일반빵,식빵, 맘모스빵, 단팥빵, 슈크림빵,경주빵 등
- 관련사진



빵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저렴함 - 비싸지 않음 - 괜찮음	- 예전에 먹던 빵이 있어서 좋았음	- 좁지만 아늑함 - 친절함

5일차 저녁

- 상호명: 미래책방(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4길 3, 010-3656-1753)
- 참석자수: 8명
- 쇼핑물품들: 영혼의 딸, 제주 innn, 빨대, 내 몸속의 우주, 노트, 엽서, 드로잉북, 돼지씨의 옷장, 테이프, 견출지,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결심했다.
- 관련사진



독립서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가격	제품구성	공간 및 서비스
- 독립서점 가격이라 나쁘지 않네요.	- 책종류는 조금이지만, 재밌는 책이 많음 - 주인의 개성과 관심이 느껴지는 구성	- 카페같은 분위기 - 구육책방이라 원도심과 잘 어우러짐 - 공간이 넓고 답답하지 않음 - 친절함

소요비용

비용 사용 내역

- 삼도2동 동네상점 체험주간 행사에는 총 1,865,000원이 소요되었음.
- 이 중 870,000원은 구매비 지원, 995,000원은 기타 비용으로 쓰였음.
- 행사의 모든 비용은 (주)제주스퀘어에서 부담하였음.
- 구매비는 참여회차별 1인당 10,000원까지 지원하였음.
- 밋업호스트의 경우, 1회 밋업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이는 시간은 2시간 정도로 볼 수 있음. 실제 밋업은 거의 1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1시간 정도는 상점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임. 10회 진행하면 20시간을 들이는 셈이며, 가게 탐방 신청 및 문의 응대 업무, 사진 및 미디어 관리 모두 담당하여 50만원을 책정하였음.
- 밋업홍보비 출력의 경우, 4,000매 출력하여 4일간 배포하였음.

합계		1,865,000			
		수량	단가	금액	부분합계
슈퍼-결제비	10곳 * 1만원 * 명수				
슈퍼결제비 01	무근성슈퍼	11	10,000	110,000	870,000
슈퍼결제비 02	정다운마트	5	10,000	50,000	슈퍼결제비
슈퍼결제비 03	그린마트서사라	7	10,000	70,000	
슈퍼결제비 04	마트21	6	10,000	60,000	
슈퍼결제비 05	그린슈퍼	11	10,000	110,000	
슈퍼결제비 06	동네슈퍼	11	10,000	110,000	
슈퍼결제비 07	동양철물상사	8	10,000	80,000	
슈퍼결제비 08	동림당	8	10,000	80,000	
슈퍼결제비 09	요한이네 빵집	12	10,000	120,000	
슈퍼결제비 10	미래책방	8	10,000	80,000	
밋업 홍보비(출력비)-4000매		4,000	40	160,000	995,000
밋업 홍보비(배포비)-1200*4일		4	30,000	120,000	↑ 기타비용
밋업호스트 인건비	1인 * 10회 * 50,000	10	50,000	500,000	
결과보고서 작성		1	200,000	200,000	
문자 발송비		500	30	15,000	

사업을 위해 수행한 작업

- 동네슈퍼 및 상점 사전조사
 - 영업중인 동네 슈퍼 및 동네 상점 조사
 - 제주시 삼도2동으로 지역을 한정했음
- 홍보
 - 온라인 홍보 - SNS 홍보
 - 오프라인 홍보 - 신문지 전단지 삽지(4일간)
- 밋업진행 및 상점 주인 인터뷰
 - 5일간 밋업은 10회, 상점주인인터뷰는 9회 진행
- 사진 등 미디어 정리
- 일부 종이 평가 → 온라인 입력작업
- 결과보고서 작성

합의점

가능성

- 동네상점에 대한 일반 고객의 평가 수집 및 전달 모델
- 동네 생활여건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집 채널
- 동네상점 사장님의 목소리 수집 채널
- 동네와 동네상점들에 대한 연결고리 및 상생가능성 도모의 장으로서의 기능

밋업 운영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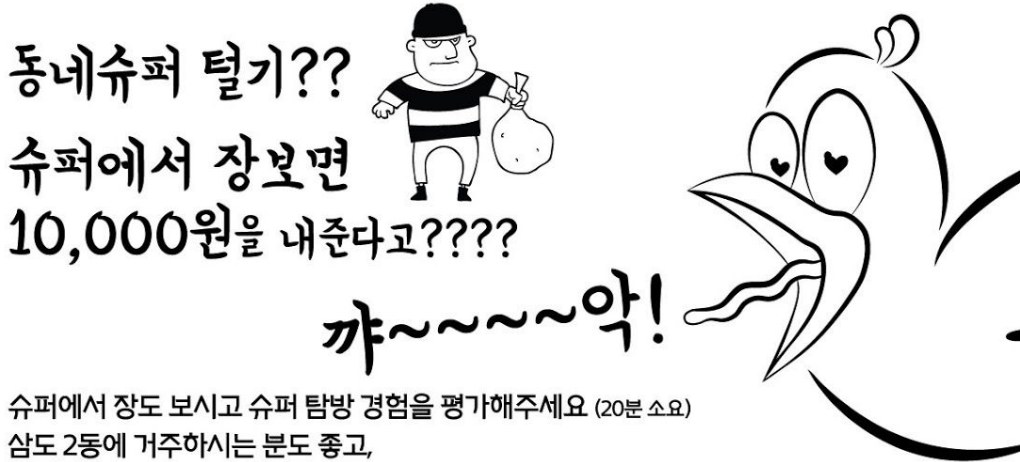
- 탐방 상점을 사전에 답사하여 운영시간 확인 및 사전 협조 조사가 필요
- 방문지에 적합한 질문지를 만들어야 함
- 동네 개선에 관한 의견의 경우 후속 설문 및 상황 파악을 하면 좋을 듯함(이는 별도의 기획이 되면 좋을 듯함).
-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상점들에 대한 동네별 자료를 수집하여, 상점별 특징을 기재한 동네 상점 지도제작을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별첨

홍보자료

포스터

5일간, 낮과 저녁, 10,000원 결제해 드립니다.



슈퍼에서 장도 보시고 슈퍼 탐방 경험을 평가해주세요 (20분 소요)
삼도 2동에 거주하시는 분도 좋고,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도 좋아요~ 여러 번 오셔도 돼요~
매회 선착순 20명에 한해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고,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삼도2동 동네슈퍼 탐방주간
2018년 10월 8일 ~ 14일 (5일간)
낮: 1~2시 저녁: 7시~8시

010-2383-0651

"슈퍼탐방 신청링크 부탁해요(성함)" 라고
문자남기시면, 신청서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려요~

신청링크: <http://bit.ly/samdo2dong02>

신청링크 QR코드:



최종 슈퍼 위치를 문자로 안내받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주최/ 주관/ 후원 (주)제주스퀘어
<http://Jejusequare.kr>

밋업 안내 문자

===

안녕하세요! [삼도2동 동네슈퍼 탐방주간]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곳에서 장을 보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셨지요?

10월 8일 월요일의 동네슈퍼를 안내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부탁해요~

<http://bit.ly/20181008jeju>

제주소퀘어드림

===

안녕하세요! [삼도2동 동네슈퍼 탐방주간]에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12일 금요일의 동네가게를 안내해드리니 아래 링크 확인부탁해요~

오늘도 슈퍼가 아닙니다. 궁금하시죠? ^^

<https://bit.ly/2pNvIJy>

제주소퀘어드림

10월 10일 수요일 동네슈퍼 안내

- 점심 : 오후 1시 - 2시 (1시 40분까지 편하실 때 오세요~)
 - 슈퍼: **그린슈퍼**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길 36
 - 전화번호:
 - (슈퍼에서는 이 모임에 대해 모릅니다. 위치만 문의하세요~)

- 저녁 : 오후 7시 - 8시 (7시 40분까지 편하실 때 오세요~)
 - 슈퍼: **e좋은마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근성7길 18
 - 전화:
 - (슈퍼에서는 이 모임에 대해 모릅니다. 위치만 문의하세요)

10월 10일 수요일 동네슈퍼 - 후기작성단 선정

● 점심 : 오후 1시 - 2

성함 맨 끝자리	핸드폰 뒷자리
선	1719
직	6311
아	5709
원	4081
숙	1218
영	3177
희	0986
솔	1975
규	0209
윤	4949
철	0145
란	1019
진	7305

저녁 : 오후 7시 - 8시

성함 맨 끝자리	핸드폰 뒷자리
선	1719
직	6311
윤	4949
철	0145
아	5709
건	5709
진	2070
원	4081
숙	1218
영	3177
솔	1975
규	0209
철	0145
란	1019
진	7305
든	2235

밋업 현장 안내문

밋업에 온 참석자들에게 밋업호스트가 다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안내문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삼도2동 동네슈퍼 탐방주간 - 안내문

삼도2동
동네슈퍼 파이팅!

● 취지 소개

- 동네슈퍼가 더욱 좋아지고 잘되면 동네에서 살기도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요?
- 동네슈퍼가 더 좋아지려면 진솔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 가격/제품구성/공간/고객응대 평가해주신 내용의 세부사항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요. 슈퍼 주인분들께 전해드려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 밋업호스트 "정현량" 님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 물건을 고른다
- > 물건 펼쳐서 사진을 찍는다/문자전송한다 (010-2383-0651)
- > 리뷰를 작성한다 (문자에 있는 링크)
- > 밋업호스트에게 보여준다.
- 카운터에서 10,000원을 결제해 드립니다. (초과금액은 직접 결제하시면 되요)

후기입력링크



<http://bit.ly/samdo2dong-shopping>

주식회사 제주스퀘어: 제주에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연결을 통해 제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일상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밥, 사는 물건, 우리가 사는 동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Jejusquare.kr

슈퍼탐방 신청하기

탐방 당일 전날 20:0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안내받기

슈퍼에 오시면, 밋업 호스트(정현량님)에게

“슈퍼탐방 왔어요~”라고 말씀하시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참여방법을 안내 받으세요~

참, 가급적 장바구니를 가져오시면 감사요~

모임의 취지가 궁금하시죠?

동네슈퍼가 더욱 좋아지고 잘되면 동네에서 살기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슈퍼가 더 좋아지려면 진솔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맛/공간/서비스 평가해주신 내용의 세부사항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요.

슈퍼 주인분들께 전해드려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 [예전 행사 - 밥집탐방 결과보고서 보기](#)

제주스퀘어 소개: 제주에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과,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연결을 통해 제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일상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밥, 우리가 사는 동네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동네슈퍼탐방 - 후기작성하기

진솔하게 부탁해요~

동네상점 피드백 설문지

맛집 참가자에게 문자 링크 또는 종이로 나누어드린 설문지.

동네슈퍼에서 장본 경험 - 평가하기

평가의 취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동네슈퍼가 더 좋아지면 동네에서 살기도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동네슈퍼가 더 좋아지려면 진솔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가격, 제품구성, 공간,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신 내용의 세부사항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요.
슈퍼 주인분들께 전해드려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실제 참석하신 분의 리뷰만 전달한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의 핸드폰 번호를 이 설문지에서 한번 더 여쭙거예요.

진솔하게 평가하기

방문한 슈퍼 이름을 적어주세요.

내 답변

구매하신 품목을 적어주세요.

품목 * 수량

내 답변

진솔하게 별점을 매겨주세요.

	★	★★	★★★	★★★★	★★★★★
가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제품구성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공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서비스(고객응 대)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가격에 대해 진솔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내 답변

제품 구성에 대해 진솔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써주세요.

내 답변

공간 구성에 대해 진솔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내 답변

서비스(고객응대)에 대해 진솔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내 답변

평소 장보는 방식

평소 자주 장을 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에서 장을 보는 것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내 답변 _____

동네슈퍼가 어떤 점이 달라진다면, 더 자주 방문할 것 같은가요?

내 답변 _____

어느 동네 사시나요?

내 답변 _____

사시는 동네에 별점을 준다면요?

1

2

3

4

5



사시는 동네에 어떤 점이 좋아진다면, 살기 더 좋아질까요?

내 답변 _____

이 행사에 대해 어떻게 알고 참여하셨나요?

내 답변 _____

이 행사에 참여한 느낌은 어떤가요?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내 답변 _____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실제 방문하신 분의 리뷰만 전달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내 답변 _____

밋업 참석자의 질문들

- 슈퍼는 어떻게 선정했나요?
-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매일매일 와도 되나요?
- 친구를 데려와도 되나요?
- 이런 행사를 자주 하나요?
- 지원받는 행사인가요?
- 돈은 누가 지불하나요?
- 왜 이 행사를 하나요?
- 제주스퀘어가 회사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돈은 무엇으로 버나요?
- 이런 밋업을 진행하면 제주스퀘어에는 어떤 이익이 있나요?
- 제주스퀘어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 구제주에서만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밋업 참석자의 거주지역

- 밋업 참여자(성인)의 거주지역 (중복 참여 포함, 미취학 아동 제외, 일부 누락)

행 레이블	개수 : 지역
노형	2
대정읍	4
도남동	1
도두동	2
동복리	6
모슬포	2
봉개동	10
북촌	3
사평	4
삼도2동	19
아라동	5
애월	2
연동	1
이도동	7
이도이동	2
일도2동	10
화북동	5
일도1동	2
총합계	87

밋업 참석자가 이 행사에 대해 알게 된 경로

행 레이블	개수 : ○○
SNS 홍보	6
기타	2
신문 전단지	5
지인소개	53
제주스퀘어 안내문자	8
총합계	74

각자 거주하는 동네 개선에 관한 밋업 참석자의 의견들

동 정보는 생략하였음.

- ..
- 8시이후 동네가 한산해서 조금...도시에서 살다와서 그런지 유동인구가 너무없어서 무서움
- 가성비 좋은 음식점이 많으면 좋겠다
- 공간구성문화
- 공간어넓어지면
- 공원
- 공원같은 편의시설
- 공원및 주차공간 확장
- 관광벨트 밝은조명시설
- 교통
- 교통
- 교통
- 교통
- 교통문제해결,문화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 교통체증
- 교통편
- 교통편리
- 교통혼잡
- 길거리에 차가 덜 세워져 있었으면...
- 네 이렇게 노력하니 좋아질것이다
- 대답하기 어려운...
- 대중교통편...
- 도로확장요^^
- 도로확장이요

- 동네를 환하게, 코인노래방 입점
- 마트가 있었으면
- 마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문화거리
- 문화공간
- 문화공간
- 문화공간
- 문화공간 확충
- 문화시설
- 문화시설 확충
- 문화시설.
-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 물가가 조금 비싼듯 해요
- 밝아지길
- 밝아지길
- 밤에 너무 어둡습니다
- 밥값 하락
- 뱅기소리안나면
- 비행기소리가 안나면
- 비행기소리가 안나면 좋겠지만 힘들겠지요
- 사는곳 근처에 약국이없어 꼭 이마트를 가야함
-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 상권
- 생각보다는 살기좋아서... 바라는게별로없어요
- 슈퍼가없음
- 시끄럽고 정신없는 도로
- 신선한 간편식품
- 심야시간 고성방가 단속
- 악취외냄새
- 여러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가지 문화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원도심 활성화 한다고 하는데 더욱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이런 행사가 일도동에도 열리면 좋겠다
- 인근에 상점
- 자연친화도시
- 정치 경제 중심지라던데 회복하길 부탁드립니다
- 조금 더 깨끗하다면
- 조명밝게, 씬터 증대
- 주민과의 교류
- 주변환경정비및테마관광로탄생
- 주차
- 주차공간
- 주차공간
- 주차공간
- 주차공간
- 주차공간
- 주차공간

- 주차공간
- 주차문제
- 주차시설
- 주차시설 부족
- 지역생활문화시설
- 지역주민교류
- 차량가 너무 쌩쌩달리고 경적을 너무 시끄러워서
- 청결과 치안. 자랑하고픈 상점들.
- 청결과 치안강화 그리고 다양한 상점.
- 코인노래방
- 큰 대형마트가 아직은 없다
- 큰수퍼
- 특별한 불만이 없습니다
- 특별히 불만이 있지는 않아요
- 편의시설, 배달되는것도 없고 빵집도없어요ㅏㅏ
- 휴식공간미흡

상점 사장님의 목소리

< 장사, 영입에 관하여 >

- 이곳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대형마트 특히나 이 동네는 이마트가 가깝잖아요.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굳이 그곳에서 살 필요가 없는 물건들을 사요. 술, 담배, 아니면 소량만 필요한 것들, 아니면 물이나 쌀 같은 무거운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주부들은 장을 다 보고 왔는데 깜박하는 것들 있잖아요. 야채같은 거 주로 사러 오구요.
- 늦은 시간에 물건 사러 멀리 가는게 귀찮으신 분들도 많이 와요. 주로 라면이나 물이나 소량구매 많이 하시죠. 그래도 그런 분들이 꾸준히 오시니 저희는 그 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 오히려 노인분들이 더 짜세요. 수입이 없으시니까요, 물 하나 우유 하나를 사도 대형마트를 가요. 젊은이들도 요즘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껴써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우선적으로 가더라고요.
- 나들가게는 공동구매가 가능해요. 주로 대량구매나 제주지역 배송 제한 품목이 많기는 하지만, 가끔 소량이라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대형마트나 저희랑 가격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더 싼 경우도 가끔 있어요. 대형마트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격을 우리도 모르게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것들도 있어요.
- 동네가게..... 잇점은 친속하니까..... 고객들의 편의를 봐 주는게 많죠.
- 부부가 같이 하다보니 운영은 자유로워요. 언제 문을 열어서 문을 닫고 딱히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교대로 식사하고 배달가면 다른 사람이 가게보고 그런 식이죠.
- 이 자리는 항상 슈퍼 자리였어요. 저희가 하기 전에도 슈퍼자리였어요.
- 인터넷구매, 대리점, 나들가게 공동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은 구매해요. 과일이나 야채같은 것들은 저희가 직접 가서 떼다 팔아요.
- 사람들이 와서 한 두개씩 찾으시거나 필요하다고 하신 물건들은 그 때 그 때 갖다 줘요. 그러다보니 점점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더라고요.
- 거의 쉬는 날이 없어요. 명절날도 쉬지 않고 문을 열어요.
- 작년부터 매출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만둬야하나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어디 다른데 가서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는 거죠. 놀면 뭐하나 싶어서... 심심풀이로.
- 예전에는 그래도 장사가 잘 되었는데, 요 앞에 편의점 생기면서 타격이 크죠. 아무래도 손님이 나뉘니까요.
-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은 라면, 술. 술이 많이 나가요.
-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사람을 쓰기는 힘들어요. 주 52시간, 4대보험 다 주고 장사 못해요.
- 골목상권이 죽는 것은 가격때문이지요. 그건 유통구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곳에서 안 파는 것을 파는 게 우리의 경쟁력이죠.
- 남의 집에서 세들어 장사하면 요즘 같은 때는 장사 못하죠. 좋은 건물은 아니어도 내 건물이니깐 힘들어도 하는거예요.
- 공산품 팔아서 마진이 거의 없어요.
- 닫는 시간은 내 맘이에요. 밤 12시 이전에 문을 닫아 본 적이 없어요.
- 가게를 하다보니 취미활동 같은 것 할 시간이 없어요.

- 정리를 안하면 품목이 수천가지라 찾을 수가 없어.
- 우리 가게는 물건도 사고 담배를 사 가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건설이나 노동직 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 그래서 담배도 같이 파는 거야.
- 철물은 목수, 건설업자들이 단골들이지.
- 여기 카페리가 다니게 되면서 이제는 제주도에 집을 한 채 짓는다면, 그걸 지을 것들은 다 차로 가지고 다 부산에서 바로 들여와 버려. 그래서 쓰다가 모자란 것들을 여기 철물점들 것을 이용하는 거지.
- 가게는 작아도 물건이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있지.
- 우리 가게가 나온 점은 다양한 물품들. 생활 철물들을 구비해 놓는거지.
- 장소도 넓고 사람도 쓸 정도의 매출이 난다면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하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 아쉽죠.
- 버스 정류장 앞이라 버스 타고 내리면서 많이들 사요..
- 빵집은 노동강도가 세요.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어요.
- 알바를 쓰고 싶어도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만들어야 하는데 알바는 그런 것을 못해요. 알바가 아니고 직원을 쓴다고 하면, 밥 해줘야죠, 근로시간 지켜줘야줘 사람쓰는 것도 힘들어요.
- 가게에 붙어있는 시간이 있어서 근무시간이 길어요.
- 초창기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보고 실험해보고 했는데, 혼자 이 일들을 다 하다보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도 다 묻혀요.
- 고정고객에게 나가는 것은 단가가 매여있으니 재료비가 올라도 가격을 올릴수가 없어요.
- 차별을 위해서 저만의 제품선택, 다른 곳에 없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은 다른 곳이나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 작은 가게들이 살아남는 것은 그런 것들 같아요.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고, 동네분들이 자주 찾아주시는 것. 저의 큐레이션도 있지만, 손님들이 자주 찾는 물건이 있으면 저도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어요.
- 자주 오시는 고객이 계시면 좀 더 잘 해드리고 싶고.....고맙고 감사하죠.
- 내년부터는 독서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구매한 책 목록 같은 것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 제가 가게를 하게 된 지 얼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험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싶어요.
- 공간을 쓰면서 계속 고민중이에요.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쓸까도 계속 고민중이에요.

< 동네에 관하여 >

- 원룸들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 그런데 세가 비싸서 노동자들 보다는 젊은부부같은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세가 비싸니 유동인구라고 봐요.
- 이곳 원도심 지역에 집세가 싸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 중국인들이 많아요.
- 구제주에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시고, 그 자녀들은 다 신제주에 살아요. 예전에 신제주에서 장사를 했는데 이 동네 와서 그 때 고객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 뵈러 오신 분들이예요.
- 이곳은 좀 멈춰진 곳, 느리다고 해야 하나!

- 일단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 유입인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유동인구가 좀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가면 가게들도 장사가 안되고 동네도 침체되고 길도 어두워져요. 저희 가게가 문을 닫으면 이 동네가 다 깜깜해져요.
- 이 동네는 집값이 저렴해서 혼자사시는 분들, 중국분들, 막노동하시는 분들 거의 1인 가구가 산다고 보면 되요.
- 여기도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하더라구요. 행복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 예전에는 여기 애들이 많았죠. 상권도 좋았고.
- 이제 앞으로는 여기 앞에 부두가 생긴다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 탐동 매립하고 있으니 부두는 생기겠죠.
- 요즘은 중국인 건설노동자가 거의 없어요.
- 우근민 지사 때 원도심 살리기 나도 반대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여기가 내 집이니 좋지는 않아도 살아가는데 이 집값 받아서 아파트 하나도 못 사는데 어디가서 집을 사고 살아요?
- 주민들이 이 동네가 좋아지고 살기 좋게 만들어지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갈 곳도 없게 만들어버리는데 누가 해, 다 반대하지.
- 요즘은 집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오피스텔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 밤 10시가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어떤 주민 반대로 12m 도로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는 버스가 안 다녀요. 버스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병문천으로 해서 탐동은 다니는데 무근성 동네 쪽으로는 버스가 안 다녀요.
-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살기 좋다고 해요. 차 없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시장도 가깝고 은행도 가깝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요.
- 혼자 사는 노인들이 누가 오겠어요. 잘 먹지도 않는데. 아니면 자녀들하고 같이 살던지 해서 잘 안 와요.
- 이 동네에 맛있는 식당이 없어요.
- 제 생각에는 항만이 적으니 이쪽 옹두암까지 카페리가 들어올 수 있는 항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해요. 비행기로만 관광객을 나를 것이 아니라 배로도 들여와야죠.
- 관덕정 뒤쪽으로 길을 다 밀어서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 꼭 이 동네에서만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적은 생각을 버리고 시 외곽에서 사는 것도 좋아.
- 이 동네는 개발해야해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 상권이 죽어있는데 관광객이 누가 오겠어요.
- 구제주.....오래된 동네가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시간이 돈이니깐. 여기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 살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봐요. 이곳이 부두근방이라 예전에는 여관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치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 아무래도 이곳의 임대료가 싸다보니 신제주에서 있다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 같아요.
- 구제주 살리기 한다고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나 내리라고 하세요.

밋업 운영에 관한 밋업호스트의 소회

● 1일차-낮

밋업 호스트로서의 첫날이다.

지금껏 시도되지 않은 실험을 하는 짜릿함과 더불어 호스트로 참여하는 책임감이 동시에 공존했지만,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했다.

지난 번 참가자로 참여했던 밥집 탐방과 진행방식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았지만, 탐방지가 달라졌으니 밋업 참가자들로부터 다른 피드백과 반응이 있으리라 예상되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슈퍼사장님께 우리행사의 취지와 진행방식을 설명해드렸다.

낮설고 이상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꽤히 승낙해 주시니 나쁘지 않은 시작이다.

첫 참가자가 도착했다. 가게 밖에서 진행방식을 설명하고 사진을 찍고..... 다음 참가자들이 도착하고, 설명을 하고 사진을 찍고, 피드백을 받고, 일련의 과정들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참가자들 중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행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긴장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친정어머니가 10년 하신 가게를 딸이 물려받아 10년을 운영하셨다고 한다. 개인적인 상황으로 잠시 맡아 운영하던 가게가 이제는 11년째라고 하신다. 젊은 나이에 처음 몇 년은 참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에서는 삶의 애환이 느껴졌다.

이 건물 자체가 아주 오래된 건물이며 이 자리는 항상 슈퍼자리였다고 한다. 공통같은 대형슈퍼 이마트가 딱하니 자리하고 있는 도로를 마주한채 오랜 세월 이 곳에서 주인은 바뀌어도 동네 슈퍼로서 자리를 이어간다는 말에 흑백필름 속 동네 풍경이 머리를 스쳤다.

구도심에 오면 가장 걱정이 주차였는데 슈퍼 앞 동네길이 대로(大路) 수준이었다.

그 대로(大路)변 슈퍼 앞에 늘어선 택시들.

이 슈퍼의 주 고객층이 택시 운전사님들이라는 이야기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슈퍼 근처에 있던 기사님은 이 슈퍼가 화장실도 쓰게 해주는 등 인심이 좋다고 하셨다. 슈퍼 사장님은 기사님들이 많이 오시고 인근에 공동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슈퍼의 화장실을 개방했다고 한다. 슈퍼 사장님의 마음씀이 느껴진다.

● 1일차-저녁

낮의 슈퍼에 비해 규모나 품목들이 너무도 다양해 도착하자마자 배시시 웃음이 돌았다.

사실 내가 슈퍼 주인은 아니지만, 참가자들이 도착해서 다양한 품목들에 흡족해 할 것을 생각하니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나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했다. 나중에 불참자 중 몇 분과 통화를 해보니 저녁은 참석하는지 잘 몰랐다고 했다. 낮과 저녁 안내 문자를 따로 보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슈퍼는 부부가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오전과 마찬가지로 여자 사장님이 차분하고

친절하셔서 밋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 동네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많은 금액이 아닐지라도 배달도 해주신다는 동네슈퍼의 인심도 좋았다.

캄캄한 골목길에 방법지킴이처럼 환히 밝혀진 슈퍼 간판이 사장님 내외마냥 친근하게 여겨졌다.

한편, 식당의 정해진 메뉴와는 달리 참가자들이 쇼핑한 물건을 살펴보는 것도 호스트의 잔잔한 재미중의 하나인 것 같다. 참가자 중 한명은 평소 찾고 있던 아이템이라며 칼같이 찾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건 나도 찾던 건데.....

신제주에서 빵집을 하시다 이곳으로 이사하셨다는 주인부부는 신제주와 구제주의 동네 가게를 모두 경험하신 분들이었다. 두 동네 차이를 물어보는 나에게 노인분들은 다 구제주 사시고 그 자녀들은 다 신제주에 산다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씁쓸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 2일차-낮

한글날이다. 아침에 한글날 행해진 원도심 행사를 참여하고, 든든하게 점심을 먹고, 밋업 장소에 도착하였다. 행사 진행을 설명하니 종업원인듯한 사람이 행사 진행에 대해 사장님이 오면 설명하라고 했다. 어쨌든 사장님이 안 계셔서 미적미적은 했지만, 행사는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추가금액에 대해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들 현금을 지니고 있지 않으니까 난감해질 수 밖에 없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계산을 했고, 없는 사람들은 대략 그 가격에서 맞추며 계산을 했다.

참가자들의 밋업 진행이 끝나고 사장님과의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슈퍼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보고서에 담지 않기로 하였다. 행사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 2일차-저녁

가게는 존재하였다. 불꺼진 간판이었지만, 엄연히 가게 상호가 있었다. 가게를 지키시던 할머니는 주인이 없다며 장사는 안한다고 했다. 알고보니 가게 주인 할아버지 부인이셨다. 평소에 할아버지가 가게를 보시는데 오늘 바깥에 나가셔서 여태까지 안 들어오셨다며 할아버지가 오셔도 귀가 어두워서 말을 못 알아 들을 거라고 하신다. 본인은 몸이 성치 않아서 지금 많이 힘들다고 다른데 가보라고 하신다. 밋업 시간은 10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난감했다. 다행히 참석자들의 명단을 보니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우선 오는 분들에게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통보를 했다. 그 사이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미리 도착한 사람들은 그곳으로 출발을 했고 나는 슈퍼를 못찾겠다며 여러 번 전화가 온 다른 참가자들을 모시고 이동했다. 낮에 진행했던 행사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고, 다행히 슈퍼 주인 아저씨께서 행사를 허락해 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다. 아저씨와의 인터뷰가 끝나고 나가려던 차에 주인 아주머님께서 들어오셨다. 마무리하려 동네 자랑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냐고 하니 동네 자랑이 술술이셨다. 원도심으로의 이사도 고려하던 차에, 이 동네로 이사오고 싶은 맘이 더욱 커졌다.

● 3일차-낮

아침부터 참가자 중 한분과 참여 룰에 관해 조금은 옥신각신 하며 설명을 하다보니 조금은 지쳐서 밋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가 가게를 방문했을 때, 주인 아주머님은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계산대를 지키시던 아저씨는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본인은 종업원이고 가게의 실세이신 회장님, 즉 부인이신 여자사장님을 소개해주신다.

무근성에서만 40년 사시고 25년째 슈퍼를 운영하신다는 주인아주머님은 참 고우셨다. 슈퍼를 운영하시기 전에는 미용실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일까?

가게는 나이드신 분들이 운영하시고 계셨지만, 진열도 깔끔하고 매대에 먼지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월요일에 방문했던 무근성마트와 멀지 않은 위치여서 지난 번 그곳에서 밋업을 진행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니 그 곳은 택시운전기사님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대뜸 답하신다.

기존 참가자분이 친구 한 분 모시고 오셨다. 그 참가자는 밥집 탐방도 하셨던 분이셨는데, 밥집은 그날 바로 데려온 지인도 참가가 가능해서 참여여부를 물어보셨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진행하면서 첫째날 내부적으로 전날 8시 이전 신청자까지만 받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청하시고 오시기를 요청드렸다. 안내문에 이런 문구도 필히 넣어야 할 것 같다. 매일매일 시행착오의 과정들이다.

주인 아주머니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본인 따님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따님도 신청을 해달라고 하신다. 미리 동네 슈퍼사장님들에게 행사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릴수만 있다면, 동네 슈퍼 사장님들 동네단골들에게 제한적으로 몇 명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어차피 이 슈퍼를 이용하는 단골들일텐데 그분들의 목소리도 궁금해졌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이 남자사장님이라면을 꿩이신다. 인터뷰가 길어지니 라면이 퍼진다고 하신다. 인터뷰를 진행하다보면 거의 3시가 다가워간다. 점심시간이 한참을 지나가버린 것이다.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아 괜시리 미안해졌다. 낮 행사는 이런 점이 맘에 걸린다.

● 3일차-저녁

먼저 도착한 지인 참가자가 내가 도착하기 전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장소는 편의점이라고. 아뿔사, 어제 저녁도 장소를 바꾸었는데 오늘도라니.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낮에 한 번 미리 방문해볼 것을 하는 후회가 들었다. 하지만, 방문장소 선정은 회사에서 하고, 어차피 우리는 사전에 가게 주인분들과 사전에 행사에 관한 언급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급하게 근처 다른 가게로 장소를 변경했는데 가게 이름을 모르겠다. 우선 주소를 찍고 갔는데 가게 이름이 <동네 슈퍼>다. 너무나 정겹고 귀여운 이름이었다. 이름만큼이나 정말 아기자기하게 재미있는 가게였다.

처음 가게에 들어설 때는 무엇을 살까 고민하던 참가자들이 반찬도 있고 야채도 있고 해산물도 있으니 살 게 많다며 오히려 좋아한다. 나 역시도 이 조그만 가게에 별게 다 있는것에 깜짝 놀랐다. 게다가 여기 있는 수산물들이 자연산이란다. 정말일까?

수산물 센터를 하시다 슈퍼를 한지는 2-3년 되셨다고 한다. 원래 수산물 센터만 하다가 근처 슈퍼가 없어지면서 동네분들이 불편해 하셔서 아예 슈퍼도 함께 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젊을 적 해녀출신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가서 낚시질이랑 물질해서 잡아오신 거라고하니 신기하기만 하다. 자연산 광어가 키로에 만오천원, 엄청나게 싸다.

이 가게만의 숨은 경쟁력은 이거구나. 제주에 오는 친구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가게이다.

● 4일차-낮

오늘의 탐방장소는 철물점이다. 탐방 장소가 바뀐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했는데 의외로 다들 재밌어하고 반기는 눈치다.

32년동안 원도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신 주인 아저씨는 원도심의 흥망성쇠를 다 겪은 전장의 용사 같았다. 젊은 날 육지에서 대학을 나오고 사업을 하다 고향에 다시 와서 정착하신 주인 아저씨는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하셨다. 원도심의 개발 이야기, 관광진흥방안, 동네 맛집 컨설팅까지 주인아저씨와의 대화는 끝이 없었다. 원도심에 대해 궁금할 때 언제나 물어볼 수 있는 백과사전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

● 4일차-저녁

원도심을 자주 다녔는데 헌책방이 있는지도 몰랐다. 사람 좋은 주인 아저씨는 버는 것보다 아직도 욕심나는 책이 있으면 사게 된다며 너스레 웃음지으신다. 신제주에서 헌책방을 하시다 이곳에 책방을 내신 주인아저씨는 아직도 신도시에 창고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다. 헌책과 골동품 수집 마니아이기도 한 주인아저씨와의 이야기는 괜시리 나의 이야기처럼도 느껴지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했다.

참가자들은 의외로 시리즈물 소설이나 연재 만화류를 많이 골랐다. 아마도 헌책방에서 골라가는 재미가 있는 장르들인 것 같다. 또한 헌책방의 매력은 시간을 들여 숨겨진 책을 골라내는 것에도 있는 것 같았다. 참가자 중 한 명이 들고 나간 책의 저자는 나도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그 책이 여기 있었다니 반갑기 그지 없었다.

간판조명조차 희미한 책방이었지만, 이제는 국수집인 있는 1층보다 서점이 있는 지하가 더 눈길이 갈 것 같다.

● 5일차-낮

오늘의 선정은 빵집이다.

몇 명이나 참석할지 궁금했는데, 5일간의 행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요즘은 빵 덕후들이 많아서 빵집순례라는 것이 등장했을 정도니 빵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은 동네 빵집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데 동네 빵집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맛'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비싸도 맛있다면 요즘 사람들은 줄을 서서라도 사려고 한다.

나 역시도 맛있는 빵집이 있다면 꼭 찾아가서 맛을 본다.

그런데 결국은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최근에 맛있고 가격도 적당한 우리 동네 근방 빵집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른 적이 있었다.

그 가게의 가격의 경쟁력은 특허기술력과 자체 생산물에 있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빵집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노동강도가 그 어떤 장사보다도 센 빵장사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5일차-저녁

이 행사의 대미는 독립서점이었다.

어제 헌책방을 다녀왔었지만, 헌책방은 헌책방대로, 독립서점은 독립서점대로의 맛이 있는 것 같다.

개인적 취향이지만, 책방 기행을 좋아한다.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이곳 책방은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

일도 하면서 좋아하는 책방도 만날 수 있는 기분좋은 마무리다.

개인의 취향과는 별개로 독립서점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마도 책을 사서 보는 시대가 지나고, 마음의 양식보다는 육체의 양식이 급한 각박한 현실이 본인들 앞에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물건의 구매는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의 목적이 다양한 동네 상점을 방문해보고 함께 공존해가는 세상을 만들어보기 위한 시도의 시작이다 보니 구매하는 물품보다는 그곳을 방문하고, 물건을 고르고 사는 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러한 실험에 동참해 보는 것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동네에 독립 서점하나가 생기면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그들만의 문화가 생기고 그 동네의 분위기도 바뀐다.

오늘도 어떤 자그마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점 주인은 앞으로도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책들을 구비해 둘 것이고, 소소하지만, 다양하고 재미난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물론 서점도 장사인지만, 하나둘 늘어나는 독립서점들 사이에서 소수의 독립서점만이 존재하던 시절의 독특한 큐레이션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미래책방에는 필름카메라 숲이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다른 독립서점과는 구별되는 이곳만의 이야기 일 것이다.

두마리의 고양이와 은은한 불빛 아래 느리직 움직이고 있었다.

주인이 아니면 문 조차 열기 힘든 낡은 건물은 컴컴한 골목길 가운데에서 다른 시공간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이것이 원도심의 또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밋업을 마무리 지었다.

밋업 운영 및 개선에 관한 밋업호스트의 생각

- 밋업 참가신청에 관하여 자세한 공지가 필요하다. 제한인원수나 참가신청 마감일시와 같은 언급이 없을 경우 참가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 밋업 참가자에 대한 분류와 제한이 있었으면 한다. 방문하는 장소는 바뀌지만, 질문지가 같아서 매번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답변이 거의 비슷해서 피드백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았다.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대상자의 다양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
- 밋업 안내문자는 각 상점 당 각기 발송을 하고, 참가여부를 답신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만일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 대기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 밋업 방문지가 바뀌었는데 질문지가 동일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다. 방문장소에 적합한 유형의 질문이 선정되어야 할 것 같다.
- 답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질문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는데 물건의 경우에는 해당지의 답변이 바로 가능했지만, 빵집의 경우에는 맛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직접 맛을 본 후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대상이나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한을 두었으면 한다. 2G폰의 경우에는 안내문자에서부터 질문지 링크 등 아무것도 볼수가 없기 때문에 호스트와 참가자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탐방장소에 대한 논의와 답사가 밋업 호스트와 미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행사의 취지상 상점 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라리 사전에 상점 주인과 논의를 거쳐 참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한다. 그렇지 않고 밋업 당일날 대상 상점의 거부나 폐업이나 영업종료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장소가 변경된다면 참가자들에게는 운영자의 미숙과 주최측의 준비부족 등으로 비춰져 행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 동네 상점의 특징상 대부분의 매장이 협소한 경우가 많다.밥집 방문의 경우에는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 등이 존재하지만, 물건의 구매의 경우에는 오히려 물건을 고르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필요해서 참가자들간의 교류나 유대감 형성은 어려운 것 같다.
- 참가동네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의 입을 통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
- 잠깐동안의 물건구매 시간이 참가자들에게 그 동네에 대한 인식의 변환이나 물건의 재구매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차라리 밋업 시간을 길게 해서 다 같이 동네 탐방의 시간을 갖고 물건도 구매하고 시간을 두고 동네와 물건구매에 대한 생각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밋업 참여자의 참여소감 및 개선 제안들

- 계산진행의 편리성
- 계속 많이 해주세요~
- 구매 사진과 함께 사용 사진을 보낼 수 있으면 번거롭긴 하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
계산을 직접 하고 추후 설문 작성 후 만원 페이백을 받으면 결제가 더 편리해질 것 같아요.
- 국민간식치킨
- 국민건강식 치킨매장필요함
- 궁금했던 가게를 둘러 볼 기회가 되었다.
- 기분좋게 장볼수있어 좋았습니다^^
- 기습적이라 주인분이 마음의 준비가 될된점
- 너무 많이 적어야해요ㅜㅜ
- 너무 재미있다.
- 너무좋아요 필요한것도 사고 몰랐던곳도 알게되었어요
- 너무좋은행사인듯합니다! 좋아유
- 넘 좋았어요. 원도심속에서도 발전시점과 떨어져 있는 작은 상점들에게 주는 메세지가 들려요~
- 다양한 것들을 접하고 재미있었습니다.
- 다양한 네트워크
- 다양화
- 단순한 장보기에 새로운 생각을 해볼수있게해줍니다
- 동네 수퍼를 다시보고 만원의 행복을 느낄수있어 좋아요~
- 동네 작은 가게만의 정겨움을 느낄수 있었다.

- 동네를 살피는 좋은 기회였다
- 동네를 알기에 좋은행사 같습니다
- 동네슈퍼부터 철물점. 빵집 등 다양한 동네상점들을 장문해보니 미처 몰랐던 서비스의 차이를 느끼게 되었다. 반면 방문 공간이 달라졌으니 질문 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
- 동네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 동네의 진솔함을 볼수 있어서 좋아요
- 만원의 행복 좋아요
- 만족스럽게 참여중이라 너무 좋습니다
- 많이개선되었으면한다
- 몰랐던 마트 가볼수 있다
- 뭔가 참여자들끼리 인터랙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전 답사및 준비가 너무 미흡함
- 사전답사및 점주와의 소통
- 사전답사후 허가를 미리 받았으면 좋겠다.
- 새롭게 동네마트를 다시보게됨
- 시간 공지가 조금 더 빨랐으면 합니다.
- 시간구성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설문을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다
- 시간이 좀 더 자유롭고 영수증만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한다.
- 안내 문구 판(종이)가 붙어있으면 좋겠다
- 양호
- 양호
- 예전에 빵집을 했었는데 그 때 기억이 새록새록. ..기본식빵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 오늘은 또 새로운 책을 깃할수있는 좋은시간이었습다 감사해요~~~♡
- "완전 신나요~~
- 다른 동네 슈퍼는 오랜만이다"
-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주위사람에게 홍보하면 거욱 동네에 애착을 갖지 않을까요
- 작은공간에서 새로운것들 좋아요...
- 재미 있어서 좋았어요.
- 재미있네요. 금액을 전부 계산해줬으면 좋겠어요 ㅎㅎ
- 재미있는 행사 즐거워요
- 재미있어요
- 재밌다, 자주하고 즉석신청도 가능했으면
- 재밌어요
- 정겹다~~오랜만에 동네 슈퍼를 돌아다니니까 재밌다
- 좋아요
- 좋아요
- 좋았습니다~!
- 좋은결과와네트워크바랍니다
- 좋타
- 주차시설이 있는곳으로
-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 질문 항목에 대한 모호함.
- 질문이 너무많아요ㅈㅈ
- 참신하다

- 참신하다.
- 참신한 아이디어가 좋아요
- 참신해서 좋아요.금액을더 늘려주세요
- "참여동기는 동네슈퍼 탐방
- 상점주인분들의 서비스 마인드"
- 참여하는 입장에선 사실 특별한 불만은 없어요
- 청결
- 취지 너무 좋고요, 아직까지 특별한 개선점은 없다고 생각되요
- 특별한 개선점은 없습니다
- 편리 재미
- 평소 궁금했으나 선뜻 들어가게 되지 않던 점포를 방문할 수 있어 신선했다. 더 관심을 갖고 점포를 살펴보게 되어 좋았다. 점주가 모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 헌책방도 알고 필요한 책도 구입하니 기뻐요.
- 헌책방을 알게되어 좋았다

행사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물었던 질문들

- 지원받는 행사인가요?
- 돈은 누가 지불하나?
- 왜 이 행사를 하나요?
- 제주스퀘어가 회사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돈은 무엇으로 버는가?
- 이런 밋업을 진행하면 제주스퀘어에는 어떤 이익이 있나?
- 제주스퀘어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 구제주에서만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주의 남는 것과 모자란 것을 연결합니다.

제주스퀘어는...

제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협업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과 제주의 자원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연결하고자 합니다.

제주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현장의 문제들을 크라우드 소싱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발굴한 문제들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고 해결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주에 필요한 긍정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기획 (주)제주스퀘어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
발행처 (주)제주스퀘어
발행인 김나솔
작성자 정현량, 김나솔
H <http://jejusquare.kr>
E jejusquare@gmail.com
T 010-3309-4397
F 0303-3442-2443